

2011.04.18 미래정책연구실

□ 미국 밀 가격 상승, USDA 바이오에너지 연구 지원 강화

1. Wall Street Journal(2011.04.12) 주요 내용: 미국 밀 가격 상승

○ 최근 건조한 날씨와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미국 밀 선물가격이 이를 연속 8달러를 상회하여 동반 상승함.

- CBOT 5월 인도분 연질 적 동소맥(Soft red winter wheat)은 0.75센트 증가한 부셸 당 7.9825 달러로 마감되었으며, 장중 한때 8.0950 달러까지 상승함. 밀가격이 8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최초임.
- 일리노이의 축산업 관계자들은 옥수수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, 이달부터 연질 적 동소맥으로 사료를 대체하겠다고 밝힘.

○ 한편, 건조한 날씨로 인해 가뭄은 미 서부의 연질 적 동소맥과 다코타주의 경질 적 춘소맥 생산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.

- 지난 월요일 USDA는 텍사스 곡물생산지역의 40% 이상이 매우 심각한 가뭄 상태(Very poor)를 보이며, 첫째 주의 9%에 비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발표함.

○ 푸르덴셜-바체의 애널리스트 션 맥캠브리지(Shawn McCambridge)는 수일 내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므로, 가뭄 피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.

- 이번 가뭄으로 인해 미국의 밀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, 세계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 밀 가격 상승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미국산 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.

2. USDA(2011.04.12) 주요 내용: USDA 바이오에너지 연구 지원 강화

○ USDA의 톰 빌색(Tom Vilsack) 장관은 바이오에너지와 바이오기반 제

품(Bio-based products) 생산에 대한 연구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함.

- 오바마 대통령과 USDA는 바이오연료 생산 지원 및 연산품(Co-product)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함으로써, 바이오기반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으며,
 -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낮출 뿐 아니라,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.
- 이번 연구지원제도는 바이오에너지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시스템(Sustainable regional systems) 확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.
- 장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연간 360억 갤런의 바이오연료를 생산한다는 에너지 안보법(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)의 목표를 달성하고,
 - 더 교육하고, 더 혁신하고, 더 분발함으로써(out-educate, out-innovate and out-build) 미국이 바이오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.
-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목표를 제시함.
- 지속가능한 사료 생산시스템을 위한 곡물 보호
 - 연산품 개발을 통한 가치 제고
 - 탄소 격리(Carbon Sequestration)와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

*자료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